



한성 B.C.C 스프레이형 소화기 '이지119'

“3초면 화재 진압” ... 한 손으로 뿌리는 소화기

8년 전 일이다. 정영신 한성B.C.C 대표가 공장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가의 기계에서 불이 났다. 허둥지둥 소화기를 찾았지만 설상가상으로 작동이 안됐다. 안에 든 분말이 굳어 버린 것이었다. 몇 분 새 기계는 새까맣게 됐다.

“소화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정 대표는 주먹을 짝 쥐며 그때를 떠올렸다. 소방차가 와서 겨우 불을 끄지만 물세례를 맞고 녹슨 기계는 고철로 파는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스프레이형 소화기 '이지119'에는 정 대표의 뼈아픈 경험이 녹아 있다.

◆작지만 성능은 뛰어난

한성B.C.C는 2008년 설립됐다. 이지119를 내놓기 전까지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도색용 스프레이(모델명 이지 스킨)였다. 중국 러시아 독일 호주 등 9개국에 수출해 2014년 '100만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유사 제품과 경쟁 제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유독 힘을 못 썼다. 국내 차량 도색 산업이 영세한 탓이었다. 엄격한 규제 탓에 자동차 튜닝 시장이 성장하지 못해서였다.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던 정 대표는 화재 사고의 아픈 경험에서



정영신 한성B.C.C 대표가 스프레이형 소화기 '이지119'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주방 화재에 대비 가능

“편리하다” 입소문 먼저

요양병원·조리원서도 인기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지119 무게는 480g 정도다. 스프레이형 살충제와 비슷한 크기 덕분에 한 손으로도 쓰기 쉽다.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우수하다. 기존 소화기처럼 꾸준히 관리할 필요도 없고 살충제를 뿌리듯 쉽게 사용할 수 있다.

◆3m 거리서도 진화 가능

이지119는 가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식용유 화재에 탁월하다.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식용유 화재에 대응하기 어렵다. 소화 분말이 식용유 표면의 불을 끄지만 식용유 온도를 낮추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온도가 36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식용유에는 계속해서 불이 붙는다. 물을 부었다가는 물이 끓어오르며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튀어 오하려 불이 더 번진다. 이지119 소화액은 식용유 온도를 급격히 낮춰 다시 불이 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정 대표는 “식용유 때문에 불이 붙은 프라이팬을 3초면 진화할 수 있다”며 “3m 이상 분사돼 떨어져 떨어져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말 대신 액체를 분사하기 때문에 주변 오염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한자·노약자도 편하게 사용

이지119는 지난해 10월 출시 뒤 편리함과 범용성 덕분에 입소문을 탔다. 올 1월에는 마산 에코요양병원이 500개를 주문해 병실마다 비치했다. 힘이 약한 고령 환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원에 이어 산후조리원 등 노약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알앤지-웹인증 보안 출로그 시스템(스웍스) 070-4077-0769 △고려도도-깨끗한독배기 (055)355-1679 △제오메이드-안전도어시스템 (032)245-4712 △한성비씨-스프레이형 간이스화기 EASY119 (055)295-3173

자가 많아 일반 소화기를 쓰기 어려운 시설 등에서 주문이 빠르게 늘었다.

이 회사는 올해 이지119 매출을 4억원으로 잡고 있다. 올해 전체 예상 매출(12억원)의 30%를 넘는 수준이다. 정 대표는 무역 경험을 살려 호주로 수출을 시작했다. 캐나다와 중국에서는 제품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한성B.C.C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산소캔을 내놓는다. 불이 났을 때 유해 가스로 질식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창원=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소비자들이 '지인 시뮬레이션'으로 아파트 도면을 살펴보고 있다. LG하우시스 제공

“도배 후 인테리어 미리 보세요” IoT 활용한 가상현실 서비스

(사물인터넷)

LG하우시스·KCC 등 전국 아파트도면 DB 적용

LG하우시스 KCC 등 주요 건재업체들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시작했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벽지 등 인테리어 제품을 시공한 뒤의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매장 등에서 벽지 샘플만 보여주던 기존 영업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LG하우시스가 선보인 '지인 시뮬레이션'은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결정 한 뒤 실제 아파트 도면에 따라 제품 선택, 비용 산출, 상담 연결 등이 한 번에 가능한 웹스톱 온라인 서비스다. 이 회사는 전국 아파트도면 9만여개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최대 30만개까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제품 및 공간별로 상세한 비용 산출이 가능하도록 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용 모바일 버전도 출시했다. 이완주 LG하우시

스 통합마케팅팀 부장은 “모바일 버전 출시 이후 홈페이지 접속자가 2배 늘고, 견적 관련 상담 건수가 1.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뿐 아니라 인테리어 매장에서도 가상현실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인테리어의 정은숙 사장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니 리모델링 수요가 훨씬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KCC도 지난 8월 PC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테리어 쇼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VR 쇼룸'을 내놨다. VR 쇼룸은 홈씨씨인테리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홈씨씨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된 24개 스타일의 모델하우스를 체험할 수 있다.

옥실전문기업인 대림바스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셀프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 30만개까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파킨슨병 치료 신약에 ‘도전’ ... 중국서도 러브콜

이기섭 카이노스메드 대표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앓았던 병인 파킨슨병은 근육 떨림, 얼굴 경직 등의 증상이 있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질병이지만 아직 병을 완치하는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인 카이노스메드가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KM-819'의 국내 임상 1상을 시작했다.

이기섭 대표(사진)는 “지금까지 나온 파킨슨병 치료제는 증상완화제 수준으로 5년 정도 쓰

면 내성까지 생긴다”며 “카이노스메드는 신경세포를 죽이는 단백질(α-syn)을 이용해 혁신신약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파킨슨병 혁신 신약 개발에 나선 이 대표는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맨'이다. 1981년 정보기술(IT) 분야가 유망하다는 판단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다. 실리콘밸리에 컴퓨터칩 개발회사인 실리콘이미지를 공동 창업해 1999년 나스닥에 상장시켰다. 2007년엔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생각에 카이노스

메드를 창업했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9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기술을 김은희 충남대 신약개발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소에서 이전받았다. 이 회사는 FAF1이 신경세포를 죽일 수 없도록 기능을 억제하는 원리를 적용해 약을 개발 중이다. 서울대분당병원,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유전체 분석업체 신

테카바이오 등과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연구를 한다. 이 회사는 구강건조증, 에이즈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8개 신약 개발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구강건조증은 국내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이즈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는 중국 양저우 에이디어 바이오에, 비만당뇨 치료제는 중국 크라운바이오에 중국 시장 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했다.

이 대표는 “임상시험 비용 등을 중국 파트너가 부담하는 데다 향후 전망이 좋은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제약사들과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스테인리스 가스온수기 경동나비엔 출시

경동나비엔(대표 최재범)이 초소형 스테인리스 가스온수기 'NGW55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가로 350mm, 세로 540mm, 두께 165mm로 기존 제품보다 부피를 25%가량 줄였다. 북미 시장을 사로잡은 온수기 기술을 국내에도 선보이기 위해 이 제품을 내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마트 온도제어 밸브를 적용해 편차가 거의 없는 일관된 온수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원종호 경동나비엔 영업본부장은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상업용 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 주사기 또 쓰면 처벌한다

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 등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지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도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

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 포장 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품을 한 번 쓴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어기면 의료인 자격이 5년간 정지되고,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면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스마트 디지털 보청기로 일상 속의 순간마다, 듣는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블루투스 이어셋 형태 보청기
운전, 등산 여가활동 시에도 핸즈프리 형태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에 적합한 음성, 음향
주변환경에 적합한 음성, 음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한 출력의 보청기능
스마트 보청기는 4채널 4밴드 타입으로, 효과적으로 청력상태를 반영합니다.



충전식 배터리
편리한 충전식



합리적인 가격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 4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스마트 히어링 에이드 [SE-220]
판매가격: ₩465,000원



판매원 SK텔레콤(주), (주)삼신E&B 제조원 (주)비에스엘

전문 판매요원 모집 (50세 이상 우대) : (주)고령친화 02-717-8991~2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스마트 디지털 보청기 체험 장소

- 본사(숙대입구) 080-778-4741
- 아이파크몰(용산) 080-704-1004
- 테크노마트(강변) 080-552-5332
- 전국 다비치안경체인(보청기입점매장)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070-7432-0460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www.kmall25.com 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상품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